

다산포럼

공직자 논란에 인문학을 생각한다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

이어서 터진 현직 부장판사의 막말 댓 글 파문도 한 일탈적인 법조인이 저지른 우연한 사건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댓 글의 내용을 보면 왜곡된 이념 편향에서 비롯된 타자에 대한 증오심이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법조계에도 스며 있다는 사실이 두려울 정도다.

그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선거 개입 댓글 작업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어서, 그 개인적 일탈이 현재의 권력구조가 조장하는 저급한 이념 공격과 결합 되어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 두 사태는 비단 문제제기 있는 두 공직자의 겉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가치의 영역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이들은 공히 자신들의 공적인 위치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소양을 갖추지 못했으며, 민주사회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시민의식조차 없었다.

이처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갖추지 못하고 왜곡된 의식에 빠져 있다면 일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일전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

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며 소양을 기르는 인문학은 취업 후에 천천히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논란을 초래하였다.

취업이야 물론 중요하지만, 인문학이나 소양훈련이 직업과 상반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장관의 편협한 생각도 그렇고, 교양교육을 이수한 후 전공 수업으로 들어가는 세계 공통의 대학교육 편제와도 어긋나는 발언이어서 대학인들을 경악하게 하였다.

교육부 장관의 대학관은 앞의 두 공직자 사태와 무관한 것 같지만, 실은 그런 공직자를 낳은 사회풍토에서 비롯되고 또 그런 풍토를 더욱 조장한다는 점에서 일맥 상통한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인문학은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며 함께 살기의 윤리를 습득하는 방법이다. 인문학은 대학 교양 교육의 중추를 이루고 앞으로 졸업생이 어떤 직장이나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공공적인 시민의식과 품성을 가지도록 훈련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사회의 대학들은 하나같이 인문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는 가진 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조

건이 악화되고 일상적인 안전조차 위협받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규제 완화라는 미명 속에 해운회사는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선박을 개조하고, 자식들의 죽음을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희생자 가족들의 여망조차 이념의 닢이 씌워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완구 후보자처럼 언론을 겁박하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인과 막말 댓글 판사처럼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증오의 욕설세례를 퍼붓는 법조인이 나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자처할지 모르나, 인문학의 가치가 부차적인 것으로 폄해되고 그런 관점이 정책에 반영되면, 대학은 더불어 사는 의식을 가진 성숙하고 교양있는 민주시민이 아니라 자기이익을 앞세우고 힘을 숭배하는 무교양한 기능인들을 길러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적 욕심으로 가득찬 자격 없는 공직자들이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 어찌 빈발하지 않겠는가? 시민적 교양을 높이는 인문학의 과제가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도 긴요하게 된 오늘날이다.

정춘 특·특

스마트폰과 유리감옥



양운호 동신대 한의예과 1학년

에 들어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얼굴 앞에 둔 채 아는 체를 한다. 심심하다고 밖에 나갈 필요도 없다. 핸드폰 속 수많은 멀티미디어들이 즐거움을 선사해 주기 때문이다. 거실에 놓인 스마트 TV도 다양한 여흥거리를 제공해준다. 주변 친구들 또한 그 변화를 느끼는 것을 보면 비단 우리 가족만의 변화는 아닌 듯하다. 우리끼리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빨리 접해서 걱정이야!”라며 더 어린 세대를 걱정하기도 한다.

글로벌세상이 도래함에 따라 소통능력에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다. 남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한 경쟁력인 시대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우리는 양질의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더 이상 일방향 정보 공유가 아닌 양방향 정보 공유가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명절에 대화소

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액정화면 속 편안하고 인력한 유리감옥의 생활에 우린 이미 익숙해져 있다. 학교를 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를 만나면 서도, 수업 중에도, 수업 후 짧은 쉬는 시간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된다. 그 익숙함이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편리하기 때문에 주변의 감시한 모든 것들에 대해 무심경해진다. 당장 새롭고 편리한 것에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심히 여기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본다. 나 또한 그 유리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지도 벌써 두 달째다. 민족대명절인 설날도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에 계획했던, 작심삼일도 끝났을 수도 있던 다짐들을 다시금 정비해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 계획 중 하나로 이번 설날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이라는 익숙함을 조금 낯설게 바라보면 어떨까? 액정화면이라는 유리감

옥에서 고개를 살짝만 들어보면 내 곁에서 나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나에게 반가움과 즐거움을 주는 사촌들, 먼발치에서 언제나 응원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을 볼 수 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함, 내가 얼마나 배려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감사할 일이 많든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유리감옥 속을 뛰쳐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따뜻한 대화와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기 위해서 유리감옥과의 결별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나에게 무슨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익숙함에 안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들레를 ‘후우’ 불면, 민들레 훌씨가 멀리멀리 퍼져서 꽃밭 가득 만개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의 소중함에 대해 한 번씩 더 생각해보면 올해 설날은 집집마다 대화소리로 가득한 따뜻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꿈꿔 본다.

기고

100세 시대, 꼭 필요한 농지연금



양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개방, 기후변화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했던 고령 농업인 세대가 지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은 복지라는 큰 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농촌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특히 고령농가의 평균 경영 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77.5%가 10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고령농업인은 농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관의 약화가 이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농지 담보 역모기 제 도입이 ‘농지연금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는 이유다. 가입조건도 비교적 간단해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3만㎡ 이하면 가능하며 재산세 감면혜택도 있다.

무엇보다도 농지를 담보로 맡긴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농으로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연금을 수급 받는 동안, 담보농지의 임대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036명이 가입해 2013년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입자 평균 월지급금은 96만원으로 나타나, 노인의 월평균 소비지출액(2011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 141만원의 68%를 농지연금이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이다.

올해 1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가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동안 농지연금 혜택을 가입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령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후 보

장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역시 많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44%가 농지소유자의 자녀로 나타났다.

농지연금 가입에 자녀세대의 적극적 협조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부모는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땅을 물려받을 재산이라는 생각에 얽매어 있는 건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와 의견에 꾸준히 귀를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무엇보다 노후에 대한 농업인 스스로의 설계와 자녀들의 관심과 지지가 농지연금이 자리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00세 시대, 부모의 노후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부모님께 권하는 것도 새해를 맞아 자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효도가 되지 않을까.

社說

부실한 송정역 교통망 KTX효과 없다니

호남고속철(KTX) 개통이 목전인데도 준비 소홀 등으로 광주 송정역 이용객이 급박하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인과 막말 댓글 판사처럼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증오의 욕설세례를 퍼붓는 법조인이 나오는 것이다.

예정대로 오는 4월 1일 호남선 KTX가 개통될 경우 송정역의 1일 이용객은 현재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도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그런데도 17일부터 송정역을 신역사로 이전해 영업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 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날 이용객을 위한 연계 교통망 구축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전남권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은 아예 없고 광주 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 마을버스 2개 노선 연장이 고작이다. 전남 서남부권 시외버스 정류장 신설을 놓고 잡음만 일고 있다. KTX가 광주역까지 연결되지 않아 불편을 겪

을 북구와 동구민을 위한 대책도 없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지난 2013년 협약 체결 이후 멈춰 있다. 환승터미널, 주차장, 비즈니스호텔, 상업·유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부지문제를 놓고 사업자와 코레일, 광주시가 이견을 보여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이러다가는 KTX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는 오명만 얻게 될 가능성도 크다. 낙후된 광주·전남 발전을 담당할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KTX의 생명은 신속한 이동이다. 지역민들의 수도권 진입은 물론 외지인의 지역 내 빠른 이동을 위해서도 송정역과 연결되는 후방 교통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송정역은 이제 거점역이다. 전남 서남부권 시외버스 정류장 신설을 놓고 잡음만 일고 있다. KTX가 광주역까지 연결되지 않아 불편을 겪

설 대이동 구제역·AI 예방 만전 기하자

설 명절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이 비상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고향을 찾거나 성묘에 나서는 유동인구가 3300만 명에 달해 사람과 차량에 의한 가족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전남에선 AI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행히 소·돼지에 치명적인 구제역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긴장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권으로 번진 구제역은 이번 설 명절 귀성객이나 차량을 통해 전남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과 AI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지만 이제는 봄·여름·가을 할 것 없이 사계절화 하면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AI는 지난해 전남지역 오리 농가 114곳에서 발생해 276만1000여 마리가 매몰 처리됐으며

울 들어서도 15곳, 30여만 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구제역의 경우 최초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방역체계가 허술했다는 얘기다.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투입된 살처분과 보상금만 4조 원이 넘는다.

정부와 전남도, 각 지자체는 설 연휴가 구제역과 AI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구제역 예방 접종과 방역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축산 농장에 외방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귀성객들도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물론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다소 불편하더라도 차량 내외부와 탑승차 소독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과 AI가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다 토착 질병화 가능성도 커진 만큼 상시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범국민적 노력만이 ‘축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無等鼓

1980년대 학창시절, 명절을 앞두고 서울에서 고향 전주로 내려갈 수 있는 차편은 많았다. 우선 열차나 버스가 가능했고, 총학생회에서 대절한 관광버스나 친척의 승용차에 동승하기도 했다. 기차나 고속버스가 가장 편안하지만 원하는 날짜의 시간대 표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때는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던 때라 열차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다. 당시에 완행 임시열차 입석표라도

잡거리는 소리... 달경거리는 귀성 열차 속에서도 오로지 고향에 간다는 일념으로 여러 불편을 감내했다.

어느 해는 대학 총학생회에서 대절한 관광버스를 이용했다. 같은 대학에 재학하는 동향의 선·후배들과 함께 한 버스 안은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얘기를 나누며 귀성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딱 정월만 탄지라 버스 안은 번잡함이 없었고, 설명 고속도로가 막힌다 해도 에타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구한다면 감지덕지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아마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부분의 입석표를 가진 귀성객이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명당’이었다.

귀성 풍경을 담은 많은 보도사진 가운데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은 아가씨가 가장 유리창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대표적이다. 지금이야 유리창이 밀폐돼 불가능하지만 1초라도 빨리 좋은 자리를 잡아 고향에 가기 위한 1970년대 산업사회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선물 꾸러미가 바리바리 얹혀져 있는 선반, 팔걸이에 엉덩이를 걸치거나 아예 통로에 신문지를 깔고 주저앉은 귀성객, ‘까치웃’을 입은 아이들의 재

옴은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에서 전주로 올라간다. 귀성 흐름과 거꾸로 향하는 까

닭에 정체가 지체없이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다. 명절을 쇠고 내려올 때도 역시 서울 방향 차들이 꼬리를 무는지라 예정 시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오는 4월에 KTX 호남선이 개통되면 귀성 풍속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33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귀성수단은 다양해지고, 귀성시간 역시 더욱 단축될 것이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고향으로 향하는 귀소(歸巢) 흐름은 변함없을 듯 싶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고향 가는 길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